

안면중양부의 악성종양 절제후 미세수술을 이용한 즉시 재건술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안희창·김석권

안면중양부의 악성종양으로 인해 근치적 광역 절제술을 시행한후 남는 커다란 결손부는 환자에게 이 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며, 외과의사에게도 쉽게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 부위는 뺨, 구개부, 안 와 및 안검부, 비배부, 상구순을 이루는 안면의 중양부를 형성하면서, 안면 윤곽의 중심적 형성부일 뿐 아니라, 비강과 구강의 벽을 형성하는 호흡기 및 소화기관의 한부분으로 정확한 발음을 내고 음식 물을 섭취하는데 중요하며, 안와 내용물을 지지하고, 결손시에는 뇌등 중요 기관의 노출 혹은 염증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악성 종양절제후 흔히 방사선치료를 받기 마련이어서 이에따른 조직괴사, 누공형 성, 염증등의 합병증이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악성종양의 광역 절제후 미세수술을 이용한 즉시 재건 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뿐아니라, 완치 및 삶의 보다 나은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저자들은 지난 4년간 19예의 안면 중양부 악성종양환자에게 종양의 광역절제후 유리피판술로 즉시 재건하여 주었다. 활배근 피판이 9예, 전박부 피판이 7예, 복직근 피판이 2예, 견갑부 피판이 1예였으 며, 이 부위의 특성상 구개 및 구순의 구강부, 비강부, 안면부의 3차원적 입체 재건을 위하여 19예중 10예에서는 2개의 피부편을, 2예에서는 3개의 피부편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러한 재건술의 결과, 각 피판의 유용성,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Immediate Microvascular Reconstruction of Midface Following Resection of Cancer

Hee Chang Ahn, M.D., Seok Kwun Kim, M.D.

Department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College of Medicine, Dong-A University, Pusan

The surgical treatment of maxilla, orbit, and cheek cancer requires extensive ablation, which often results in large composite defects. Few procedures in head and neck surgery produce more severe functional impairment, devastating physical deformity, and emotional anguish in the patient. Implicit in the concept of successful surgical management of this problem is that resection and reconstruction must go together. Extensive defect of the midface often requires three-dimensional volume reconstruction.

Over the past 4 years 19 cases at Dong-A University Hospital and Kosin Medical Center have undergone immediate reconstruction of complex, composite defects of the midface structures after tumor extirpation. The latissimus dorsi musculocutaneous free flap is preferable for three-dimensional reconstruction of the middle third of the face. Forearm free flap is also useful for reconstructing the cheek and palatal area or combining the procedure with bone graft. Multiple skin paddles are needed to make three-dimensional linings. Immediate reconstruction has not only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for many of these patients but has also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for many of these patients but has also improved survival statistics.